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 대축일
교황주일

제1독서 : 사도 12, 1-11
제2독서 : 2티모 4, 6-8, 17-18
복 음 : 마태 16, 13-19

순정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 16, 15)

강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엄기봉 신부/호성동성당

오늘 복음 말씀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비슷한 사람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말한 것 뿐이고 본 모습은 제대로 알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대답할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아본 훌륭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무엇보다도 “고난받는 중”으로서의 메시아를 강하게 의식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만이 메시아로서 만민에게 참된 의미의 생명과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의 견해, 제자들의 견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견해를 간단히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과연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습니까?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어서 “글쎄요”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처럼 성현중의 한 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지, 아니면 “예수님은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마음으로부터 우려나와 ‘예수님은 제게 있어 첫 번째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그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 크겠지만 하느님 나라에 가서도 기쁨이 더 클 것이다.” 아멘.

소리

못된, 못한 언론

서울의 한 백화점이 벌이고 있는 ‘북한 흙 나눠주기’운동에서 받은 함경북도 흙을 만져 보았다. 커 피병만한 유리병에 담긴 함경북도 흙은 물기없이 버실버실한 모래와 황토흙이 섞인 불그레한 것이었다.

이 흙은 그 넓은 함경북도 어느곳의 한 줌 흙에 불과하지만 그곳을 떠나 월남한 실향민에게는 무척 뜻 깊고 가슴 미어지는 흙일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게되는 북한의 식량사정은 뭐라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가까이라도 있으면 내 밥 내 쌀을 얼른 내어줄 수도 있을 터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마음을 더 타게 한다.

추기경님도 전주에 오셔서 그랬지만 우리가 보내는 양식이 군대로 흘러가더라도 보내줘야만 하는 것이 인간된 우리의 도리다. 그런데도 방송과 신문(몇 신문은 좀 다르지만)은 북한의 실상을 망해가는 즐거운 조짐이라는 쪽으로만 다루고 있다. 마치 죽을 지경에 이르면 그 짐승에게 무지막지하게 달려드는 더러운 짐승 하이어나처럼……

천주교 신자 가운데도 군량미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의식 때문에라도 양식을 보내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참 무서운 생각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그런 잔인한 생각은 접어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명을, 인간을 살리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것일까. ☹

순정이 산책



신한국목장의 결투

성서의 오솔길

기쁨의 샘

2. 출애굽기

성서를 읽는 즐거움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심 켄마/중앙성당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에집트 탈출기(脫出記)'이다. 요셉시대에 가뭄으로 인하여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이 온 집안 식구를 거느리고 에집트에 가서 정착했다. 그들이 한 백성으로 불어난 다음 에집트를 탈출한 경위와 탈출 직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의 전편(1-18장)은 매우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엮여져 있다. 히브리인들의 수가 너무도 급속히 불어나는 바람에 에집트 왕 파라오는 정치적 위협을 느껴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인종말살 정책을 편다. 하느님은 이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준다. 파라오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자, 하느님은 열 가지 재앙을 내려 마침내 파라오를 무릎꿇게 만든다. 히브리인들은 자유를 얻어 에집트를 탈출하며, 뒤이은 파라오의 군대의 추격에서도 하느님은 히브리인들을 홍해바다를 마른 발로 건너게 하시고 파라오 군대들은 물 속에서 섬멸하신다. 하느님은 히브리인들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시고, 바윗돌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시나이산으로 인도하신다.

출애굽기의 후편(19-40장)은 구약성서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하느님과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하느님이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불러 십계명을 내리신다. 십계명은 하느님과 인간, 인간 상호간의 근본 원리로서 영구 불변하는 도덕법이다. 이어서 장차 이스라엘이 마땅히 준수해야 하고 또 하느님 백성의 일상생활과 종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법령들이 선포된다.

그리고 나서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의 피를 뿌려 계약이 체결되었다. 또 성소(聖所) 건축에 대한 법령들이 소상히 언급된다. 성소는 하느님이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곳이며, 또 모세에게 말씀을 내리시는 곳이다. 출애굽기 마지막 여섯(35-40장)은 성소를 짓는 이야기를 싣고 있다.

이런 저런 성서 공부 과정에 참석하면서 성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무지를 많이 떨쳐버리긴 했지만 성서를 몇 번 다 읽었다든지 하는 자랑할만한 노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점점 삶에서 말씀이 되짚고 있는 자신을 보게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봉독하는 말씀으로 밤을 거룩하게 해 주십사 기도하게 되고, 눈을 뜨면서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본다. 그날 그날 읽은 말씀은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또 무심코 계단을 오르다가도 문득 나를 사로 잡는다. 때로는 한 단어 한 구절이 될 수도 있지만 성서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뜻일까 했던 말씀이 삶에서 만난 사람들과 상황을 맞물리면서 새롭게 다가올 때의 맛이란...

전화를 받는 순간 "야야!" 하는 반가운 친구 목소리가 끈이 되어 풍랑속에 시달리다 물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이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하시는 말씀을 듣고 안심하는 모습을 느껴 보기도 했다.

성서는 매일 먹는 밥처럼 삶에 힘을 주는 양식이 된다. 성서 말씀은 반찬처럼 달콤하기도, 쓰기도 하지만 눈으로 읽고 머리에 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을 하나 하나 새롭게 일깨우고 통합시켜 주는 그 힘은 내가 살아 가는 영적 양식이 되어준다. 성서를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때 모든 일을 꼼꼼히 생각하시며 마음에 품으신 마리아님을 떠올린다. 그리고 성령께 살짝 말씀드린다. "오늘 들려주실 말씀이 제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려주세요"라고.

◆ 성서통독을 하시면서 느낀 체험을 보내 주십시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
교구청 사목국 홍보과 ☎ (0652) 85-0041

사단법인 대한 해동 검도
• 정신통일과 집중력 향상
•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수양
박요한(요한) · 박은경(루시아)
익산 전원맨션 상가 2층
☎ 857-7144, 0779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인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015팔달통신·017
전북이동통신 팔달 대리점
신세기통신 팔달 대리점
오현종(스테파노)
유미숙(마르타)
전주 오거리 국민은행 옆
☎ 84-0015~6

영창피아노 전주 총 전시장 A/S 전문점
• 10개월 무이자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 신자분 특별 우대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구 서중로타리 동서중권 맞은편
☎ 252-0103~4

잠간

축! 사제서품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루가 15, 31)



안봉환(스테파노)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비유들 가운데 특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다른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 표현되는 사랑의 모습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아버지의 포용적 사랑은 삶의 체험에서 얻은 아들의 참된 회개와 눈물과 기쁨을 감싸주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아버지결을 떠나 방황하는 이들에게도 열린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찾고, 바라고, 실천하려는 이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품식 : 7월 5일(토) 오전 10시, 중앙성당 주례-이병호 주교

첫미사 : 7월 6일(일) 오전 10시 30분, 소양성당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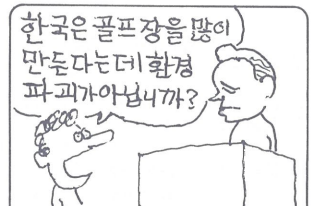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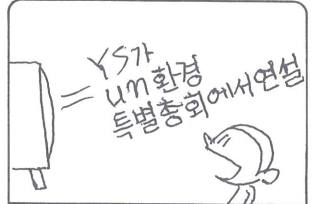
교구·제 단체 소식

1. 신학생 하계 연수 : 6월 30일(월)~7월 2일(수), 수류 청소년 야영장
2. 교구청직원 본당사무장(원) 2차 피정 : 7월 1일(화)~3일(목), 나바위 피정의 집
3. 레지오 단원 교육 : 6월 30일(월) 오후 7시, 오룡동 성당
4. 레지오 6차 영성피정 : 7월 1일(화) 오전 10시, 천호 피정의 집
5. 푸른군대 일일피정 : 7월 3일(목) 오전 10시, 덕진성당
6. 성모기사회 월례회 : 7월 5일(토) 사제서품식 후 중앙성당 성모상 앞
7. 포콜라레 월모임 : 7월 6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8.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7월 8일(화) 강사-김윤섭 신부, 주제-생활한 기도
7월 12일(토)~13일(일) 강사-유영봉 신부, 주제-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북한 형제돕기 성금 접수

김봉옥 10만원, 성글라라 봉쇄 수녀회 150만원, 호자우전성당 70만 510원, 성심여교 교직원 일동 33만원, 학생 일동 13만 9천40원, 소계-2,769,550원, 총 접수액-19,578,320원, 접수처-천주교 전주교구 사회복지회(☎ 84-5290) 성금 접수구좌-국민은행 : 506-21-0923-006(정양현) 우체국 온라인 : 402206-0054484-12(정양현)

요심이 (1246) 김병오



순창성당 김치

천연 양념만으로 맛을 냅니다. 포기김치, 알타리, 열무, 백김치, 들산 갓김치, 각두기 재래식품-된장, 간장, 고추장 전화로 주문 배달 군산 (0654) 452-4939 익산 (0653) 52-5300

오룡동 성당 신용협동조합

장의용품 일체 취급

입관, 염 무료봉사

군산시 오룡동 942-6

☎ (0654) 61-6767~8

(주) 청풍 공기청정기

세계 최초 국제발명품대회 환경부문 8회 연속 금상 수상 •담배연기, 냄새, 세균, 곰팡이균 등 오염물질 완전분해, 쾌적한 생활공간 •무소음, 무필터, 음이온(-) 산소발생 공기청정기 조흥기(아빨리나리스) 이현자(세 시 리 아) ☎ (0652) 251-0222

현 건축인테리어

•실내외장식 •통나무 전원주택 •APT인테리어 •건축 개보수 양 두 현(가브리엘) 최 광 님(세실리아) 호자동 상산타운 맞은편 225-3570(집) 227-2945(사무실)

침대 곁 전시장

◎ 목재 침대 •싱글 : 110,000원 •더블 : 160,000원 •퀵 : 300,000원 이 레 가 구 산 업 김 미 숙(안젤라) 완산구 삼천동(풍납중 건너편) ☎ 225-2368, 5328

푸른광고기획

•개업·회갑, 각종 행사 사은품 •창립장, 광고지, 봉투, 명함, 스티커 •프랑카드, 상패, 명패, 트로피 등 정의평(리우렌시오) 서영란(마리아) ☎ (0652) 225-8147 휴대폰 011-657-8147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너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택

- ◎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마태 16, 19).
- 1. 모임 안내 : ① 구역반장회 - 2일(수) 전 10시
② 사목회 상임위원회 - 4일(금) 후 8시
③ 레지오 꾸리아 - 6일(주일) 교중미사 후
- 2. 교황주일 : 오늘 교황님 전교황등을 위한 2차헌금 있음
- 3. 영명축일 : 바오로 수녀님 - 축하드립니다.
- 4. 전신자 불링대회 : 오늘 후 2시, 63불링장
- 5. 성시간 : 3일(목) 저녁미사중
- 6. 구역 성화의 달 : 7월은 우정주택구 성화의 달
- 7. 글로리아 심가대 : 매주 화, 금요일 후 8시
- 8. 초·중·고생 여름 신앙학교 : 22일(화)~27일(주일), 접수바람.
- 9. 도서관 운영 : 책자, 비디오 테이프 기증받고 있음
- 10. 북한 동포돕기 : 총 성금액 - 1,325,590원
- 11. 부속시설 신축헌금 : 급주 납입자 - 8명, 소계 - 1,430,000원
- 12. 금주 전례 : 해설 - 한광희, 독서 - 최영재(요셉)부부
봉헌 - 강영호(요셉) 가정
- 13. 차주 전례 : 해설 - 박종구, 독서 - 박삼차(아오스딩)부부
봉헌 - 김두성(실바노)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1,526,060원 □ 교무금 : 3,516,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너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호

- ◎ 주님께서 온갖 무서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 ◎ 화산동 성당 친교바자회
① 오늘 밤 10시까지 ② 저녁미사 없음 ③ 교황주일 2차헌금
- 1. 구역방문 : 30일(월) - 그란, 7월 3일(목) - 은하, 7일(월) - 화산2A
- 2. 봉성체 : 3일(목) - 사무실에 신청 바람
- 3. 성시간 : 4일(화) 후 7시 30분
- 4. 구역 미사 : 4일(금) - 화산 1가, 11일(금) - 남양서원
- 5. 사목회 : 5일(토) 후 7시 30분
- 6. 차주 모임 : ① 꾸리아 - 전 9시
② 구역(반)장 회의 - 낮미사 후
* 음반보급활동 - (서울교구) 발산동 성당
- 7. 바자회에 애써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8. 성전 신축에 임하는 우리의 결속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청소 봉사 : 5일(토) - 신비로운 장미Pr.
- 10. 교무금 수입현황 : 285세대, 107,173,000원
- 11. 신축헌금 수입현황 : 307세대, 709,010,000원
- 12. 폐품 정리 : 5일(토) - 바다의 별Pr.
- 13. 금주 전례 : 새벽 - 광순옥, 낮 - 이영순, 저녁 - 홍정의
- 14. 차주 전례 : 새벽 - 유희정, 낮 - 이영숙, 저녁 - 김영중

□ 지난주 봉헌금 : 871,310원 □ 교무금 : 1,613,000원
□ 북한동포돕기 2차헌금 : 331,1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택
F A X 74-9260 수 너 원 72-9262 사목회장 유 준웅

- ◎ 냉담교우에게 "숯집이"를 전달합니다!
- ◎ 교황주일 2차헌금 : 오늘
* 교황주일을 맞이하여 교황 성화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바칩시다.
- 1. 금주 모임 : ① 방주회 - 공식미사 후, 4회의실
② 청년공동체모임 - 저녁미사 후, 4회의실
- 2. 주간 모임 : 빈첸시오회 - 7월 3일 후 2시, 유아실
- 3. 차주 모임 : ① 요아킴회 정기총회 - 공식미사 후(전원 참석바람)
② 안나회 - 공식미사 후, 유아실
* 차주 - 빈첸시오회비 납부일
- 4. 예비신자 피리 : 직장반 - 화요일 후 8시, 주부반 - 목요일 전 10시
* 많은 예비신자들을 하느님께 인도합니다(7월 15일까지).
- 5. 전입가정 환영 : 김은수(베드로), 최병기(베나시오)
- 6. 성당부지헌금 신입 감사! : 익명 20만, 고재권 100만, 익명 20만, 송정희 30만, 한상우 60만, 조덕남 2만, 김영중 20만, 애령희 100만, 이춘옥 100만, 정문희 50만, 송진옥 60만, 최성팔 20만
누계-2억 4천8백35만5천원(394세대)
- 7. 독서 : 급주(새벽) - ① 오광희 ② 황순자, 차주 - ① 김석철 ② 오영순
급주(공식) - ① 박영호 ② 김영숙, 차주 - ① 김진현 ② 오영실
- 8. 미사 안내 : 급주 - 인자하신 모후Pr., 차주 - 사랑하을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 1,505,760원 □ 교무금 : 3,774,000원
□ 북한형제돕기2차 : 1,468,32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복
수 너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세

- ◎ 주님께서 온갖 무서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도다.
- ◎ 새 성전 신축위한 묵주기도 봉헌 : 소계 - 8,746단
누계 - 457,563단

- 1. 모임 : ① 요셉, 사목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③ 테니스 - 오늘 후 2시
- 2. 오늘은 교황주일 : 2차 헌금 있습니다.
* 교황님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 3. 봉성체 : 7월 5일(토) * 신청바랍니다.
- 4. 67차 M.E : 7월 25일부터 * 희망자는 미리 신청바람
- 5. 용머리 초막공동체 : 7월 26일~27일
- 6. 금주 전례 : 해설 - 오은표, 독서 - ① 이강순 ② 김춘애
- 7. 청소 봉사 : 5구역 전체

□ 지난주 봉헌금 : 919,900원 □ 교무금 : 1,794,000원
□ 북한동포를 위한 2차헌금 : 413,000원

효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현
보좌신부 223-3823 수 너 원 223-3822 보좌신부 권 원성
F A X 223-3821 사목회장 이 병선

- ◎ 교황주일 2차헌금 : 오늘 봉헌합니다.
- 1. 금주 모임 : ① 성체봉사자 모임 - 1일(화), 전 11시
② 구역봉사자 모임 - 2일(수) 전 10시 30분
③ 환자봉성체 - 2일(수) 후 2시
④ 성모기사회 - 5일(토) 전 10시
- 2. 차주 모임 : ① 성모회 - 9일(수) 전 11시
② 예루살렘회 - 12일(토) 전 11시
- 3. 금주 성서 통독안내 : 신약복음 - 마르코복음
- 4. 초·중·고등부 여름산학교 : 7월 19일(토)~21일(월), 진안 조림초등학교 * 효자가족 야유회(1박2일) - 구역형제회 주관
* 야외미사 - 20일(일) 전 10시,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5. 청년회기금 마련을 위한 1일 바자회 : 7월 6일(일) 10시부터, 성당 뒷마당, 차림-차와 맥주
- 6. 레지오 단원을 위한 미사 : 화요일 10시(7월 1일~8월말)
- 7. 유아세례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후 4시
- 8.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 봉사 : 쌍용A 2단지
- 9. 전입가정 환영 : 김동희(요아킴) - 개나리A 102-204 T. 226-6686
- 10. 본당발전헌금 : 변향진(안토니오) 일심단, 최원규(마태오) 일심단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523,110원 □ 교무금 : 3,377,000원
□ 북한동포 2차 헌금 : 647,210원

효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태
보좌신부 226-0443 수 너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호준
F A X 226-1044 사목회장 김 규원

- ◎ 성전 신축을 위한 묵주 100만단 봉헌 : 소계 - 5,880단,
누계 - 750,222단

- ◎ 교황주일 2차헌금 실시
- 1. 금주 모임 : ① 요셉회 -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 - 저녁미사 후
③ 여성분과회 - 4일(금) 10시미사 후
- 2. 본당에서 저장용 마늘을 판매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3. 2차 신축헌금 수입액 : 누계 - 5억 4천7백1십6만원
- 4. 북한 동포를 위한 사랑의 저금통 : 오늘(29일)까지 제출바람
- 5. 예비신자 피리 : ① 성인교리 - 매주 수요일 후 8시,
매주 목요일 전 10시
② 중·고등부 - 매주일 전 10시
- 6. 차주 : 천주의 모친Cu., 자모, 성모, 성심회
신학생 후원 가입과 회비집수
- 7. 금주 전례 : 해설 - 이종표, 독서 - ① 조세열 ② 이정금
봉헌 안내 - 김규원, 황경례 부부
- 8. 차주 전례 : 해설 - 이인숙, 독서 - ① 우기도 ② 배계향
봉헌 안내 - 정영환, 최영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447,970원 □ 교무금 : 3,143,000원